

메시지 10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교통 가운데서 공동의 누림을 갖도록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화평\*이 되심으로  
활력 그룹과 같은 교회생활을 얻으시고  
궁극적인 화목\*제물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심**

성경: 레 3:1-2, 6:12, 7:37, 빌 4:5-7, 11-13, 요 12:1-3

- I. 우리의 번제물과 소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린 결과는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 레 3:1-2, 6:12, 7:37.
- A. 우리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평안\*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평안을 얻으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더욱더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은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 롬 14:17, 고전 12:3하, 엡 3:16-17.
- B. 평안을 갖는 정도가,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리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 엡 1:2, 비교 마 11:28-30.
- C.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며, 언제나 내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한다 — 마 6:25, 34, 빌 3:13-14, 히 3:7-8, 13.
- II.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교통 가운데서 공동의 누림을 갖도록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화평이 되신다 — 비교 고전 1:9.
- A.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했다.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연결되고 동일시되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은 동일시되는 문제, 곧 우리가 그분이 되고 그분께서 우리가 되시는 문제이다 — 레 3:2, 8, 13.
- B. 화목제물은 누가복음 15장 23절과 24절에서 영접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돌아온 탕자인 죄인 사이에 화평의 누림을 가져다주는 살진 송아지가 예시해 주고 있다.
- C. 우리는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평안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평안은 모든 사람의 이해를 초월한다 — 빌 4:12, 7, 요 16:33.
1.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며,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일에서도 그리스도를 얻는지에 관한 비결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 빌 4:11-13.

\* 영어 단어 'peace'를 한국어 개요에서는 문맥에 따라, '화해', '화목', '평안'으로 번역했습니다—역자 주.

## 레위기

### 메시지 10 (계속)

- a. 우리는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즉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상의해야 한다 — 빌 4:5-6, 비교 수 9:14, 잠 3:5-6.
  - b. “이 비결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어려운 일로 여긴다. 사실상 여러분은 다만 끊임없이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살 것이다.”(하나님의 구원의 유기적인 방면, 64쪽) — 빌 1:19-21상.
  - c.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실행한 결과로 하나님의 평안, 곧 평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안으로 주입되시어, 고뇌에 대한 안정제가 되시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가 되신다. 이럴 때 우리의 관용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실 수 있다 — 빌 4:5-7, 9, 1:20, 롬 8:6, 요 16:33.
    - 1)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평안의 강이시고 위로하는 어머니이신 주님을 누리게 된다 — 사 66:12-13, 비교 갈 4:26.
    - 2)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광풍을 피하는 곳과 폭우를 가리는 곳과 마른땅의 냇물과 황폐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이신 주님을 누리게 된다 — 사 32:2.
2.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우리의 체험을 위한 그리스도의 미덕들은 평안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이다 — 빌 1:19-21상, 2:5-13, 3:8-10.
- a. 바울은 관용과 염려 없음을,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의 첫째가는 두 가지 방면으로 여긴다.
  - b. 사탄에게서 오는 염려는 인간 생활의 총체이며, 그리스도를 사는 믿는 이들의 생활을 어지럽힌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관용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총체이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된다.
3.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 빌 4:5.
- a. 관용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배려하며, 자기의 법적인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관용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받아도 쉽게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 b.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따르면, 관용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관용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미덕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 결정 연구 개요

### 메시지 10 (계속)

- 1) 관용은 사랑과 인내와 친절과 겸손과 동정심과 사려 깊음과 복종과 기꺼이 양보함을 포함한다. 모든 것을 포함한 이러한 미덕을 갖는다면, 우리는 또한 의와 거룩함을 갖게 될 것이다.
  - 2) 관용은 또한 절제와 중용과 온화함과 이해심과 동정심과 지혜와 긍휼과 평온함과 주님을 양망함과 심지어 주님께서 모든 일에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미덕을 포함한다.
- c.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 적합하고 항상 알맞게 처신하는 사람이다 — 비고 고후 6:1상, 10:1, 빌 1:19, 사 11:2.
- d. 우리가 관용을 베푼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언제 말해야 할지를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 사 50:4-5, 골 1:28.
- e. 관용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나 말에 의해 다른 이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 대하 1:10.
- f. 모든 것을 포함한 미덕인 관용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께서 관용이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의 삶은 관용이었다 — 빌 1:21상.
- 1) 우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확대한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의 본으로 삼고 우리의 목표로 추구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는 것이다.
  - 2) 오직 주 예수님만이 관용이 가득한 삶을 사셨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늘날 우리의 완전한 관용이 되실 수 있다.
  - 3) 우리의 관용이 알려지게 하는 것은 모든 인간 미덕들의 총체인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 g. 관용에 대해 말한 즉시, 바울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말한다.
- 1) 공간적으로 주님은 우리와 가까우셔서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시간적으로도 주님은 가까우셔서 곧 오실 것이다 — 비고 롬 10:8-13.
  - 2)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가리킨다 — 마 1:23.

## 레위기

### 메시지 10 (계속)

4.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 빌 4:6-7.
- a. ‘모든 일에서’는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많은 일들을 가리킨다.
  - b. 기도는 경배와 교통을 본질로 하는 일반적인 것이다. 간구는 특정한 필요를 위한 특별한 것이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는 모두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
  - c. ‘하나님께’는 누군가를 향한 동작을 나타내며, 생생한 연결과 교제의 의미에서의 교통을 함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이다.
  - d. 평안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순찰하시면서, 우리가 고요하고 안정되도록 지키신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잠잠한 생활이다(딤후 2:1-2, 사 30:15상).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첫 번째 방면은 안정됨이다. 여기에는 경쟁이나 헛된 영광이나 불평이나 따집이 없고, 다른 이들과 논쟁하거나 다투거나 싸우는 것이 없다.
  - e. “여러분의 관용이 ... 알려지도록 하십시오.”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구할 것을 ... 말씀드리십시오.”라는 말씀과 비슷하다 — 빌 4:5-6.
    - 1)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와 구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분과 대화한다면, 우리의 염려는 관용으로 바뀔 수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만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즉 우리에게 어떤 걱정이나 염려가 있다면,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그것을 말씀드려야 한다.
    - 2)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 드리는 것은 그분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심지어 우리가 구한 것에 응답하시기도 전에,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키신다. 신성과 인성의 실지적인 연합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묘사된 왕래에 의해 수행된다.
  - f. 우리가 염려 없는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좋은 나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하신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살며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우리의 운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 롬 8:28-29, 마 10:29-30, 고후 4:16-18.

## 결정 연구 개요

### 메시지 10 (계속)

- III. 우리는 어떻게 활력 그룹과 같은 교회생활을 갖는지에 대한 비결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교회생활은 잔칫집, 곧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잔치이며, 여기에서 그분과 그분의 연인들은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 요 12:1-3.
- A. 이러한 교회생활은 부활 생명에 의해 산출된다 — 요 11:43-44.
  - B. 이러한 교회생활은 깨끗하게 된 죄인들로 구성된다 — 막 14:3.
  - C. 이러한 교회생활은 외적으로 가난하고 고난을 받는다 — 요 12:1, 16:33.
  - D. 이러한 교회생활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함께 잔치를 누리는 생활이다 — 요 12:2, 행 3:20상.
  - E. 이러한 교회생활에는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더 많다 — 요 12:2-3.
  - F. 이러한 교회생활 안에는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마르다의 기능과 (부활 생명을 증언하는) 나사로의 기능과 (주님께 절대적인 사랑을 쏟아붓는) 마리아의 기능이 있다 — 요 12:2-3, 9-11.
- IV.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교회생활에서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궁극적인 화목제물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 계 21:2.
- A. '예루살렘'은 '화평의 기초'를 의미한다.
  - B.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화평, 곧 우리의 안전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 C. 새 예루살렘 전체가 화평의 실체일 것이다.